



농구도 '중동 모랫바람' 경계령

내일 中 텐진서 아시아농구선수권대회 개막 레바논·카타르 등 전력 급상승 '다크호스로'

'중동 모랫바람 경계령'은 축구에서 많이 들던 말이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농구에도 모랫바람이 몰아닥치기 시작했다. '아시아의 마이클 조던'으로 불리는 파디 엘 카티프(30)를 앞세운 레바논의 기량이 급상승했고 미국에서 귀화한 선수로 전력을 보강한 요르단, 카타르나 2007년 아시아선수권대회 우승팀 이란도 만만치 않다. 6일부터 중국 텐진에서 개막되는 제25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남자농구 대표팀도 3위까지 주어지는 2010년 세

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을 획득하려면 중동팀들을 물리치는 것이 필수 과제다. 한국이 2003년 중국 하얼빈에서 열린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이후 두 대회 연속 결승 진출에 실패한 것도 중동의 모랫바람에 막힌 때문이다. 2005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8강 리그에서 카타르에 지는 바람에 4강에서 중국을 만나 결승에 나가지 못했고 2007년 일본 도쿠시마 대회 때는 준결승에서 레바논에 패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지난달 대만 타이

베이에서 열린 윌리엄 존스컵에서도 한국은 레바논, 요르단의 벽을 넘지 못했다. 레바논은 미국에서 귀화한 잭슨 브로먼을 보강해 전력이 더 탄탄해졌다는 평이고 요르단 역시 라심 라이트, 앤버 수브조코프 등 미국 출신 2명이 대표팀에서 필 예정이다. 카타르 역시 2005년 대회에서 두 번 만 나 한국이 모두 졌다. 이란도 미국프로농구(NBA) 뎀프스그리즐리스에 입단한 218cm 장신 하메드 하디디를 앞세워 두 대회 연속 정상에 도전한다. 1997년 대회 우승 이후 12년만에 아시아선수권 패권 탈환과 1998년 이후 역시 12년 만에 세계선수권 출전을 노리는 한국의 목표 달성 여부는 중동팀들과 경기에 달렸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연남뉴스**



“훈련도 즐겁게” 하인스 워드 맹증한 미국 펜실베이니아 라트모브에서 캠프훈련중인 미국 프로풋볼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하인스 워드(사진 가운데)가 3일 팀 동료 제임스 패리어(왼쪽), 디시어 타운센드(오른쪽)와 훈련을 하던 도중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남뉴스**

8일 한일 프로축구 올스타전...K-리그 대표팀 소집

“J-리그, 한수 보여주마”

한일 프로축구 올스타전인 '조모컵 2009'에 출전하는 K-리그 대표팀이 3박4일 합숙 훈련을 벌이며 필승 의지를 다진다. 차범근 감독이 이끄는 K-리그 올스타팀은 5일 오전 11시 인천시 중구 운서동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인천 에어포트호텔에 모

인다. 에어포트호텔에서 3박4일 동안 합숙하는 K-리그 올스타는 3차례 훈련을 통해 팀워크를 다질 계획이다. K-리그 올스타와 일본 프로축구 J-리그 올스타가 자존심을 걸고 겨루는 '조모컵 2009'는 8일 오후 7시 인천 월드컵경기장에

서 열린다. 차범근 감독은 최정에 멤버로 지난해 일본 원정 3-1 승리에 이어 올해 안방에서 2년 연속 승리하겠다는 각오다. K-리그 올스타 18명에는 국가대표팀의 주축 멤버인 미드필더 기성용(서울)과 김정우(성남), 윙퍼 이운재(수원)가 포함돼 있다. 2년 만에 태극마크를 다시 단 '올드 보이' 이동국(전북)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볼턴에 입단한 이정용을 대신해 차범근 감독의 호출을 받았다. 한편 J-리그 가시마 앤틀러스 사령탑인 울리베이라 감독이 지휘하는 일본 올스타팀은 7일 입국할 예정이다. **연남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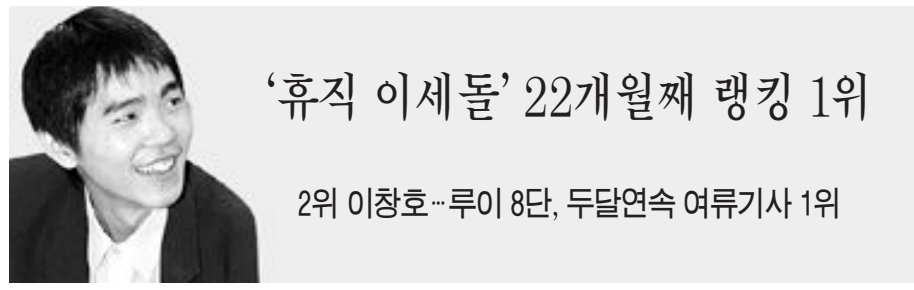
광양제철중학교 축구부가 3일 마산 종합운동장에서 끝난 무학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결승에서 울산 학생증을 2-0으로 꺾고 우승컵을 차지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양제철중 전국 최강 재확인

무학기 중학교 축구, 학생증 꺾고 우승

광양제철중학교(교장 이상국) 축구부가 '제12회 무학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광양제철중은 지난 3일 경남 마산 종합운동장에서 전국 중학교 40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무학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결승전에서 울산 학생증을 2-0으로 꺾고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광양제철중은 이날 결승전에서 전반 23분 채현욱(3년)이 우측 측면 돌파 후 방블로 크로스를 한 것을 박범희(3년)가 눈스톱 슈트를 날려 첫 골을 뽑아냈다. 이어 3분 후 홍석빈(3년)이 측면돌파 후

인발 크로스를 김건희(2년)가 헤딩으로 두 번째 골을 뽑아냈다. 광철중 채현욱(3년·MF)은 최우수선수상, 양준모(3년) 수비상, 박성민(2년)은 골키퍼상을 각각 수상했으며, 손형선 감독과 이정섭 코치는 지도자상을 받았다. 광양제철중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1993년 창단 이후 전국대회 12번째 우승을 차지하는 기쁨을 누렸다. 손형선 감독은 "포스코와 포스코교육재단의 전폭적인 지원과 뒷받침을 통해 감독, 코치, 선수 모두가 하나가 되어 훈련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이 우승의 밑거름이 됐다"고 우승소감을 밝혔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이세돌 9단이 휴직이 들어갔지만 22개월째 랭킹1위를 지켰다. 한국기원이 4일에 발표한 8월 프로기사 랭킹에 따르면 이세돌 9단은 랭킹점수 9천 639점으로 9천609점에 그친 2위 이창호 9단을 30점차로 누르고 랭킹1위를 지켰다. 7월1일부터 휴직한 이세돌은 7월 한 달 동안 한국물가정보에서 안준호 2단, GS칼텍스에서 안준영 9단과 이영구 7단에 게 각각 기권패를 당하며 3전전패했다. 랭킹점수도 56점 하락했지만 그동안 벌여놓은 점수가 워낙 많아 1위를 지킨 이세돌은 이로써 최장기간 랭킹1위기록을 22개월로 늘렸다. 이세돌이 휴직을 선언함에 따라 기권패가 속출하자 김수장 9단, 안준영 9단 등의 프로 기사와 미국 스탠퍼드 대학 배태일 교수로 구성된 랭킹관리위원회는 기권패를 랭킹포

인트에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상대 대국자가 불이익을 당하고 기권패도 패배이기에 그대로 랭킹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세돌은 8월에도 GS칼텍스에서 두 판과 KBS바둑왕전에서 1판 등 3판의 권패가 예상된다. 휴직한 이세돌의 '이상한' 1위 고수는 8월이 마지막이 될 전망이다. 2위를 유지한 이창호 9단은 지난달 '현직' 강동윤 9단에 2패를 당했지만 박영훈 9단을 이기며 한국물가정보 결승에 올랐고 하이원배 명인전 본선과 농심배 예선에서도 승승장구하며 7승2패의 준수한 성적을 거뒀다. 한편 루이나이웨이 9단은 8천945점으로 62위에 올라 조혜연 8단(63위)을 간발의 차이로 누르고 두달 연속 여류기사 1위에 올랐다. 여류3위는 전제66위인 박지은 9단이 차지했다. **연남뉴스**

박지성 긴장!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특급 잉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에 따른 전력 공백을 메우려고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영국 맨체스터 지역지 맨체스터 이브닝뉴스는 4일(한국시간) 알렉스 퍼거슨 맨유 감독이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발렌시아에서 뛰는 미드필더 다비드 실바(23·스페인) 영입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안토니오 발렌시아를 끝으로 더는 전력 보강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맨유는 호날두 이적에 따른 득점력 약화를 막으려고 실바에게 눈독을 들이게 됐다.

맨유 미드필더 실바에 눈독

왼쪽날개 주전 경쟁 불가피

실바는 왼쪽 측면을 포함해 좌우 날개를 다 소화할 수 있고 처진 스트라이커 뚝딱해 해낼 수 있다. 박지성은 실바가 맨유 유니폼을 입는다면 발렌시아는 물론 루이스 나니, 가브리엘 오베르탕, 조란 토시치 등과 경쟁이 불가피하다. 특히 실바는 왼쪽 날개에 주 포지션이어서 박지성으로서는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다.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인 박지성이 허정무 감독의 배려로 12일 열리는 파라과이와 평가전에 참가하지 않고 2009-2010시즌 준비에 전념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맨유가 실바를 영입하면서 측면 미드필더 주전 다툼을 무한경쟁 체제로 몰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지성은 정규리그 개막을 앞둔 시험 무대인 발렌시아와 평가전에서 많은 것을 보여줘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연남뉴스**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시장흐름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자산선택실명기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할
Tel: 062)973-9174, 016-757-8800

토지구할	수원지구 상업용지	건축상담
------	--------------	------

철단지구상업용지
1100평 40억(평당 470만)
200평 22억(평당 1100만)
수원테크개발지구
이주지택지
철의안도인택지
생활대역용지
신창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 140평 근방 122평 80평

주유소
650평 35억 600평 16억
골프연습장 : 120억
광주지역 녹지
주유소부지 890평 930평
물류공장부지 2900 2600 4900평
수원동 4차선길 1200평 1800평
북구본촌동 850평

전용가능한금매물
자연녹지 : 3800평-대형차진입가 6차선길
생산녹지 : 2800평-평동공단지근 특가상당

우량임야
(연수원 복지시설 골프장 측사 등)
담양 25만평 장성 14만평 보성9만평
보성 56만평 함평50만평
투자대비 수익성이 높은
골프연습장 매대가 17억 5천만원

쌍촌동 280평
2중주거지역 긴급처분
투자유망 평당 450만
화순읍 주거지역 2400여평
공장
하남공단 800평

부동산 채권 상담 투자 상담

건물매도
27억 (보증금 3억5천 월1900만)
19억 (보증금 1억5천 월1300만)
투자자치최고의 절세형 물건

● 광주·장성권 토지·건물 ●
투자유망물건 다량 보유 (0천만원~000억원)
062)973-9177, 010-3625-1362
철단지구 국민은행 주차장으로 오십시오

아파트 단독 다세대주택 상가 토지
경매 취하 부동산금매
부동산 감평가 15-50% 할인 매물

아파트·단독·다세대주택·상가·토지

- * 경매 예정되는 진행 부동산 상담 *
- * 개인 또는 금융권 대출 대환 상담 *
- * 부동산 경매 취하 매물 매매 상담 *
- * 광주전남권 부동산 투자 상담 *

금호부동산컨설팅
224-5959, 010-2831-1733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4가 36-3번지

대보빌딩 임대

★ 광주 최고 상권의 中心 ★
[동부경찰서~전남여고 후문 사이]

- 최고시설의 신축 건물(지상 6층, 지하 1층)
- 성인 학원(외국어/공무원/일반학원) 밀집지역
- 최상의 상업 지역(아시아문화전당 입구)
- 지하철 역세권 [아시아문화전당역(구,도청역)]
- 편리한 주차 공간 (20대 동시 주차 가능)
- 최신 개별냉난방 및 내부인테리어 시설 완비

- 임대면적 : 총별 167평 (분할임대 가능)
- 용도
- 1층 : 패스트푸드, 일반 매장, 당구장 (※ 1층 일부 편의점, 학원상당실 입주 완료)
- 3층, 4층 : 학원, 독서실, 일반 사무실 (※ 학원, 독서실 시설 완비)
- 2층/5층/6층, 입주 완료(학원, 독서실)

임대문의 062)234-1112

다이아몬드링
제주 마그마원석
(관광상품지정예정)

남성들이여, 당당해져라!

4층 특허 6층 실용신안 시합실적서

본 제품은 마그마원석을 3000℃ 이상으로 가공하여 원석의 선을 92.5% 방출하여 열택순환 및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합니다.

남자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5단계조절 **마그마**

“현대남성들의 최대의 고민, 37.1℃ 체온!”
1. 외소하다. 2. 빠르다. 3. 힘이없다.

“현대남성들은 생육광선, 열선, 생명의 빛이라 알려진 원적외선의 흡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단지 몸에 지나고만 있어도 정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신비의 결정체, 마그마!” (사은품증정)

사이테크 02-2677-0231~2 010-3518-8995
농협 023-02-469931(정의철)/취급점포 www.hotnakyung.co.kr